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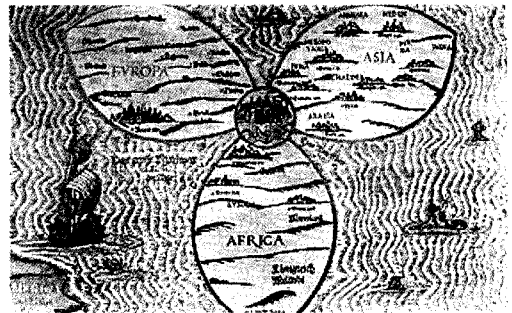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음주문화와 음주문제 대책



조 성 기
(KARF 경영기획본부장)

1. 과음을 하기 시작한 하느님 나라 사람들

카톨릭의 성당은 음주에 대해 허용적이고 기독교의 교회는 음주를 금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보통 사람들은 "계율은 하나일진데 뿌리가 하나인 종교에서 술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왜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신앙의 원조인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그 모습을 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으로 표현한 회화

- 1. 과음을 하기 시작한 하느님 나라 사람들
- 2. 이스라엘에서도 예외가 아닌 음주문제
- 3. 이스라엘인들의 음주문화
- 4. 이스라엘인들의 다양한 음주행태
- 5. 이스라엘인들의 음주교육과 예방활동
- 6.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대책과 방법

과연 이스라엘들의 술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가?

성경에서는 술, 특히 와인을 인간의 마음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물질로 칭송하면서도 과음은 비난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적당한 음주를 하는 것은 일상에 체화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알코올의 음용을 허용하는 수준도 사회 통념상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역사책을 들여다보더라도 만취는 개인적으로도 조롱꺼리가 되고 가족이나 친지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에 기원을 둔 문화적인 규범에는 이스라엘인들이 분명히 금주가 아니라 적정음주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도 음주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음주에 대한 규제는 종교적 생활이나 계율의 한 부분으로서나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음주는 연회의 자리에서 대체로 이루어졌지만 과음에 대해서는 역시 문화적으로 제재가 가해졌다고 한다. 대체로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들과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유대인들 중 대부분은 음주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술꾼들처럼 누구나 술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더욱이 술을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알코올 중독은 기원후 70년에서 이스라엘 설립기인 1948년까지 지속된 이천년에 가까운 디아스포라 기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만 했던 행동들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특히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러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성경과는 달리 노아와 룻의 이야기나 잠언에 만취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도 간과할 수는 없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근에도 술 마시고 취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록에 나오는 만취현상은 주로 유대인의 현인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엘리트층의 음주를 좀더 살펴 볼 필요를 느끼게 한다. 더욱이 하느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술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

디아스포라 기간 중의 유대인들이 알코올 의존을 억제하는 사회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1960년대 이후에 알코올 중독이 서구사회와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지금 그 원인을 파헤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중간 결론으로 분명한 것은 디아스포라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유대인의 생활은 분명히 오늘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듯 하다.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그런 사실에서 일단 안심을 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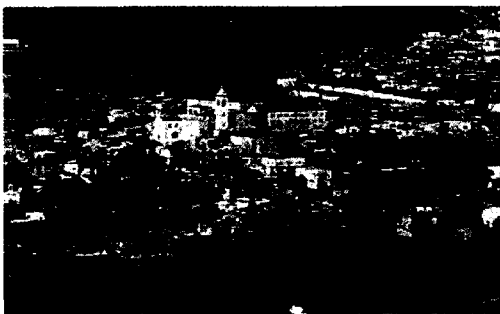


성지 베들레헴에도 술집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역학조사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난다. 최근의 유대인들의 음주실태는 다른 서구사회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술의 소비나 문제

와 관련된 국제 통계자료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집계 대상국의 밑바닥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불과 얼마전만해도 술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관한 일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고 특종감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디아스포라 시기의 음주규범이 일거에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술에는 어느 민족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술을 대상으로 인류를 연구하는 학자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제 유대인들도 적정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찾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술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발견되고 있고 늘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입증되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변화에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통탄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포도밭과 올리브나무로 둘러싸인 에인카렘

2. 이스라엘에서도 예외가 아닌 음주문제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영국령 팔레스타인 체제하에서 유대인들의 알코올 중독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었다. 사실 그러한 문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증거조차 없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었다. 술을 적정량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이미지와 그것을 결정해주는 사회적 역사적 요인들이 새로운 지역의 정착 초기에는 잘 작동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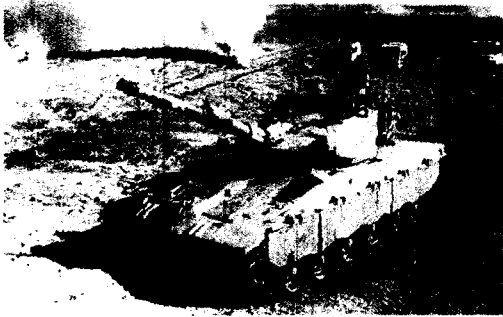
70여 개나 되는 국가들에 뿌리를 가지고 있던 이주자들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시기에는 적어도 그랬다, 사명감, 개척자 정신, 근면한 공동생활이 필요했던 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정음주라는 음주수준을 서로 지켰다고 한다. 하지만 타향살이 시절 사교적인 음주를 하던 습관은 점차 무시되어갔고 사라져갔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1950년대에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알코올 의존환자가 1960년 자료에 발견되는 것은 이를 분명히 설명해 준다. 이스라엘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로는 정신병원에서 치료하는 정신과적 치료가 주된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배우자들에게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과 자녀들의 의존증 환자의 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스라엘의 자료에서 발견되는 과음의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자들 중 북아프리카나 중동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사교적인 음주를 하는 습관을 지닌 채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초기의 적정음주 습관이 병적인 과음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주 전 국가에서 가졌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해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사람들 중 과음자 집단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생국인 이스라엘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은

적대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매우 견디기 힘들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한 긴장으로부터의 탈출 메커니즘을 술에서 찾은 사람들은 과음자로 변해갔다. 세 번째 과음자 집단은 '나치 독일'의 학살에서 생존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 적응이 어려웠고, 외로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좋은 않았던 기억을 잊기 위해 술을 선택했다고 한다.



사막의 전차, 이스라엘인들이 술 마시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197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인들의 음주습관은 변화했다. 점차 세속화되고, 풍요가 늘어나고, 동화되어갈수록 중상층들을 필두로 적정음주가 이상 과음자가 늘어나고 과음에 대해 부정적이던 태도가 변화하였다,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집단이 늘어나고 혼자서 마시는 사람들도 늘었다. 중상층 음주자 집단들에게 술이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술을 마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세계화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해외여행자들은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술 마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입국을 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인들은 그 선물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인도 자연스레 술 마시는 일을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술을 쾌락적으로 마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취를 일삼게 되고 그러자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대폭 늘어났다.

한마디로 1970년대는 이스라엘인들의 생활습관을 크게 변화시킨 시대였다. 이스라엘인들의 가치와 규범이 점진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대가 아니었었나 생각된다. 고고한 이스라엘 사회도 다른 사회처럼 변화해 가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지 않았나 보다. 다른 민족들과 살았던 사회 속에서 고립된 삶을 지속해왔던 디아스포라 시기와 건국초기에는 적정음주가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렇지만 변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그러한 습관을 지켜내기란 어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한 일이었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음주실태에 관해 몇 가지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인들이 과음에 시달리는 빈도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확인된다. 먼저 이스라엘 알코올 음료의 1인당 생산과 소비가 늘고 있다, 병원 입원자수도 늘고 있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여성, 이스라엘 태생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음주관련 범죄도 물론이다. 좋지 않은 소식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알코올 의존증 역학조사가 있었던 시기는 1977년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다 한 10년 정도 빠른 시기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하긴 술 문제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 졌으니 발 빠른 대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겠다. 우리나라는 문제는 개발시대 이후 지속적이었지만 대응이 늦은 것이 아닌가.

더욱이 청소년에 대한 조사도 197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는 KARF가 설립

된 2000년에 있었으니 우리보다도 20년 이상 앞섰다. 이는 이스라엘에 음주문화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치료시설로는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치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서 외래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스라엘의 AA(익명의 알코올의존자 모임)가 설립된 것은 1974년이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AA 도입 이후에 다양한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취객에게 술을 파는 행위도 문제시되기 시작한다. 청소년 관련 금지사항은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 보다 20년 이상 앞선 일이다. 이스라엘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음주관련 문화는 계속 변화를 거듭한다. 유대인들도 다양한 외국산 술을 수입해서 마셨고 맥주와 같이 전에는 없었던 술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알코올 중독이 늘어났고, 성인층의 만취행각은 물론 청소년층의 음주도 팽창하였다.

전국조사결과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성인의 35%가 알코올 의존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청소년 음주문제가 서구 국가들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학자들은 실제 문제가 늘고 있고, 이스라엘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법적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다.

이스라엘에서 거주치료시설이 설치된 것은 1983년이다. 1980년 대에는 거주치료시설에 대체로 연간 150명 정도가 입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1990년대에는 2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아직 그럴듯한 거주치료센터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료문제에도 제대로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중심의 1차 예방사업도 1980년대에 시작되고 있다. 이 또한 우리나라 보다 20년 이상 앞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정부 차원의 청소년 음주예방사업이 본격화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 음주문제를 가르친 성과를 1984년에 평가해 본 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결과 청소년들의 태도, 행동, 인식 등이 성공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교육당국은 투자를 지속하지 않은 듯 하다. 그것은 1987년에 교육부가 채택한 교과과정이 아직도 큰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1990년대에 청소년 음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데 투자한다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집단농장인 키부츠와 지역출신의 청소년들의 음주문제가 다른 지역출신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이는 사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술로 만드신 가나촌의 전경

람이 모여 있는 곳에 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예외가 없는 일임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맥주를 파는 펍이 2,600개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전에는 불과 수십 개에 불과하였다는 자료가 있다. 최근 귀국한 여행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곳곳에 술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맥주가격이 다른 음료수의 가격보다 싸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음주를 막으려면 당국에서 맥주 값을 좀 더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옛 소련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중에 알코올 의존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온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과음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이주자들은 파티, 회의, 가족모임, 휴일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던지 생기면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음주문제를 가진 이주자들은 대체로 세 부류이다.

첫 번째 부류는 러시아에서도 많이 마셨던 사

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술 없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심한 알코올 의존자 들이다. 두 번째는 전에 알코올 의존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로 치료를 받은 후 금주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주 이후 구직, 주택 장만 등의 일상적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재발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 마시고 기쁘거나 슬플 때에도 여전히 마신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지위 상실, 경제적 어려움, 언어 상의 장애 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술을 많이 마시고 알코올 의존상태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1993년 자료를 보면 치료 환자의 30% 이상이 러시아 이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원주민과 소비에트 이주자인 알코올 의존자들 간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아닌 남성들이고, 대체로 36세-45세 사이의 사람들이 의존증에 걸린다는 것이 그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에티오피아에서 이주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맥주를 과음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이유는 에티오피아의 맥주 맛이 이스라엘의 맥주 맛과 비슷하고 알코올 농도가 둘 다 낮다는 것이라고 한다. 보건학자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중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곧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술을 절제한다는 이미지는 최근 들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인 엄격한 생활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이 아니



나치 수용소에서의 학살의 추억도 이스라엘인들을 술 마시게 하였다

다. 그들은 많이 변해 버린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들이 술집에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을 이스라엘에서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도 느슨해져 버린지 오래라고 한다.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 그 이전에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음주문제는 큰 차이가 난다. 자주마시고 많이 마시는 이스라엘인들이 태어난 것이다. 특히 맥주 소비량이 대폭 늘어난 것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속도이다.

소련이나 에티오피아에서 온 문제 음주자들도 곧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태생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음주운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제 술 문제에 관한 한 이스라엘인들도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3. 이스라엘인들의 음주문화

이스라엘에서 전국적인 음주 역학조사는 1980년대에 세 차례나 있었다. 술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소중한 자료다.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마시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데에 전국실태조사는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스라엘인들은 사실 종교와 관련된 의례상의 음주를 자주한다. 그러니 조사는 의식과 무관한 경우만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소년음주를 조사할 때 음복과 관련된 음주를 빼고서 조사해야 그나마 목적 한 바의 숫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유사하다.

이스라엘인들은 종교의식에서 신성을 의미하는 와인을 자주 마신다. 거의 매주 그러한 음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인들이 사교하는 자리에서 술을 준비하는 경

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술을 대접하는 경향과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반반이다. 사교의 자리에서 대부분 술을 마시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마시는 사람들은 3%정도이고, 2-3일에 한번 마시는 사람은 4%, 1주일에 한번 마시는 사람들은 11% 정도가 된다. 술을 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87년 자료에 46%가 술을 끊은 것으로 집계된 것은 의미 있는 통계로 보인다. 우울증 등 위험한 이유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들과나 매일 술을 마시는 문제음주자를 주변에서 만나는 것이 익숙하다는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문제음주자의 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1983년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13%가 매일 술을 마시는 가족이 적어도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은 된다고 한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적어도 한명 있는 가족이 8%나 된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다. 1987년에 조금씩 줄기는 했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자신의 음주습관이 나쁘다고 걱정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성년식

들이나 가족의 음주습관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어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1983년에는 이스라엘의 알코올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40%였는데, 1987년 조사에서는 49%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소위 체감되는 문제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일에 적어도 3번은 술을 마시는 일'로 정의되는 '정기적인 음주'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2%에서 62%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알코올의 의존증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펍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47%에서 11.1%로 늘어났는데 와인이나 증류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도 맥주 소비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전담의 음주량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들은 51%가 맥주를 선호하고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볼 때에는 키부츠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맥주를, 개발 중인 지역에 사는 청소년은 와인을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음주량 증가가 이스라엘에서도 놀랍다. 키부츠 태생 여성들은 대체로 30-40%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러



키부츠의 이스라엘 학생들

한 수는 우리나라의 1990년대의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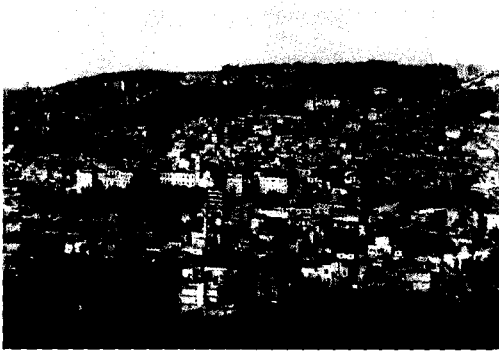
키부츠 태생 남성이 한자리에서 4캔 이상의 맥주나 증류주를 마시는 경우가 9% 정도였다. 1992년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고등학교 학생 57.3%가 술을 마시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여성들은 주로 펍이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남성들은 집이 우선순위를 차지했고 펍이 그 다음이었다. 펍이 점차 이스라엘의 음주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 하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는 키부츠, 대도시, 중소도시가 대체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종교색이 상대적으로 짙은 지역에서는 펍이 맥을 못 추는 것도 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 출신의 학생들은 75%가 맥주를 마신다고 한다. 그들은 대부분 집에서 마신다. 그런데 키부츠 거주자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술을 마신다고 한다. 이스라엘 음주자의 37.2%는 이제 술은 의례를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 마신다고 대답했다. 글로벌화로 인한 변화는 경건한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듯 하다.

이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의 위험은 늘고 있다. 이완, 긴장완화, 고통 제거, 지루함이나 기분 나쁜 상태로부터의 탈피 등이 주요 음주이유라 함은 의존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동료의 음주압박으로 술을 마신다는 사람들은 3.3%정도 밖에 안 된다. 키부츠 출신 학생들도 21.9%가 지루함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한다. 이러한 관찰결과들은 이스라엘인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의존증으로 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4. 이스라엘인들의 다양한 음주행태

누차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맥주를 마시거나 펍에서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고, 변화의 주역인 이스라엘 태생 2세대들의 만취현상도 늘고 있다. 전국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종교적인 사람들 보다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알코올 문제에 더 숙지하고 있었다.



예수의 탄생지 나자렛
그래도 종교가 절주의 규범을 제공하였다.

1983년에 20-24세의 사람들 중 14%가 맥주를 선호했는데 1987년에는 24%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스라엘 태생 인구 중 만취자 수도 1983년 4%에서 1987년 7%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종교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요한 예방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생활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술을 덜 마시고 술집 출입도 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술을 덜 마시고 있다. 문제음주자 중 여성도 물론 적다. 알코올 의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치료 센터에 여성 알코올 의존자들이 1970년대 후반

부터 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 중 10%가 여성인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알코올 의존증의 성비가 9:1인 것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인의 알코올 남용이 아직 이스라엘에서는 노인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65세 정도의 노인음주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노인들은 혼자 마시거나 주로 집에서 마신다. 그렇지만 아직은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듯 하다.

1990년에 이스라엘에 사는 이슬람과 두르제 출신 청소년을 상대로한 역학조사가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제법 나왔다. 아랍에 사는 두르제와 이슬람여성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랍인과 이슬람인들이 함께 사는 마을에서는 여성의 1%가 맥주를, 3%가 와인을, 2%가 증류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슬람이나 두르제인의 종교는 술을 금하고 있지만 남학생들은 통상 술을 마신다. 두르제 남성 22%가 맥주를, 11%가 와인을, 12%가 증류주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의 남학생은 각각 18%가 맥주를, 10%가 와인을, 14%가 증류주를 마시고 있었다.

두르제나 이슬람의 청소년들은 아버지대보다 더 많이 마시고 있다는 것으로 집계되어 이 지역에서도 술 소비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르제 남성의 6%는 한번 마실 때 맥주 4캔 이상을 마시거나 와인을 4잔정도 마신다. 마을 별로 나누어 보면 아랍인 거주지가 가장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이 이슬람, 그 다음이 아랍인과 유태인의 공동거주지 순이었다. 대체로 성별로 보거나 연령대별로 보거나 인종별로 보더라도 술 소비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조사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은

통상 이슬람인들과 두르제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을 이제는 바꿀 수밖에 없이 되었다. 이슬람사회나 두르제 사회에서 술은 남성성이나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러니 그 사회에서 여성음주는 크게 통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에서 학생들의 음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태인 사회와의 접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두르제 남성들이 술꾼이 되기 시작하는 데에는 유태인들과 군대생활이 중요한 여지를 제공했고 현대화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인들의 생활방식은 이슬람인들의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태인들과 이슬람인들의 생활습관은 이제 비슷해졌다. 술 마시는 행동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아랍인 마을이나 이슬람교도들의 거주지에서도 음주는 개방된 지 오래다. 유태인들과 함께 사는 마을의 이슬람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이제 쉽게 예상가능한 일이 되었다.

물론 아직 이슬람교도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디아스포라 기간 중에 유태인들도 잘 지켰던 그러한 계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이슬람인들도 변화해 가고 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은 아닐까?

이러한 상황은 아랍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의 치료센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인종이 회교도들이라는 것이 조사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종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인내도 상황이 바뀌면 결국 금주의 계율은 변하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자료를 찾아볼수록 알코올 남용자와 의존자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장소, 인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성스러운 이곳에는 술 문제가 없거나 줄어들고 있겠지!"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린다. 이스라엘을 조사하면서 그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지게 된다. 강력한 규범만이 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것이라는 암시가 바로 그것이다.

5. 이스라엘인들의 음주교육과 예방활동

이스라엘에서 알코올 남용을 위한 1차 예방 프로그램이 시작된 해는 1984년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문 차원에서 '알코올과 주취'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평가 작업을 거쳐 1986년에 교육부가 직접 보급에 나섰던 것이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예방교육의 중심에서 있는 중요한 결과물이다.

교사교육과 상담자교육이 상당수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점은 역시 고등학생들에게 과음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 가치, 기술 등을 가르치는 데 두어졌다. 특히 술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키부츠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1986년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는데 교육의 중점은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데 두었다.

이스라엘의 음주문제 예방활동의 전위대는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기구인 '이스라엘 알코올

문제예방 학회(The Israe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lcoholism)"이다. 일찌기 1976년에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예방정보를 담은 팜플렛과 리플렛을 배포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운전자 카드, 포스터, 스티커 등을 제작했고 핫라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최근 이주해온 이주자들을 위해 러시아어와 암하리어로 된 예방자료를 제작하였다. 국회가 알코올을 규제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였고, 전문가와 부모들을 훈련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경제적인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6.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대책과 방법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브츠를 중심으로 한 모델이 제안되었는데 학생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부모, 교사, 기타 키브츠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며 규제를 변화시키거나 대안문화를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스라엘의 예방활동은 학교와 민간기구들의 활동,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들, 규제, 법적인 강제조항 등을 통해 음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된 일들이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 음주장소, 술집 수, 주세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듯 하다. 이스라엘의 맥스컴이 시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이다.

예방기관들은 비용이 비싸다는 사실을 이유

로 맥스컴을 통한 예방홍보사업은 꿈도 못 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TV와 신문, 잡지에서 수입주류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88년에 이스라엘과 호주, 미국과의 비교연구가 있었다. 어떤 예방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역시 TV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신문과 잡지가 두 번째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인들

가족이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일이다. 유대인은 종교적인 행사에서 술을 취급하고 어린시절부터 그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자란다. 또한 청소년 들은 어른들에게서도 배운다. 어른들이 서구의 음주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제 술은 이스라엘에서 의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물질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역시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 되어

버렸다.

음주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기본 입장은 유태교의 규범과 전통을 따라 취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인들은 술을 적당하게 마시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금주라기보다는 적당히 절제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마셔도 된다는 것이다. 결코 이스라엘인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할 때 술을 동반하는 그러한 행동규약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대해 허용적이다. 반드시 그래서는 아니지만 누차 밝힌 바대로 청소년 음주인구가 늘고 있고 음주

문제는 커져가고 있다. 물론 과음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인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정부당국자, 교육자, 학교의 책임자들, 교사, 부모들은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법적인 장치나 예방수단을 충분히 제도화하여 문제를 줄이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규범도 이스라엘 청년들의 술잔을 잡기에 힘이 충분치 못한 것이다. 늘어만 가는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스라엘인들이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謹德，須謹於至微至。施恩，務施於不報之人

덕행을 삼감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아주 작은 일에 삼가고, 은혜를 베풀에 있어서는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힘쓰라

- 채근담 -

唐詩감상 / 李昌符의 詩

나그네의 봄시름 (旅遊傷春)

술이 깨었나니 고향이 멀고
밤이 깊었는가漏水소리 그쳤다.
숲그림자 밖에서 새벽이 트이고
비소리 속에서 봄이 다 간다.

강마을 길에서 새 날음이 게으르고
들언덕 바람에 꽃이 시든다.
내 십 년에 이룬 일 무엇인고
이제는 여윈 말도 다니기 싫어한다.

旅遊傷春

酒醒鄉關遠 迢迢聽漏終 曙分林影外 春盡雨聲中
鳥倦江村路 花殘野岸風 十年成底事 羸馬厭西東

1) 鄉關-고향. 2) 迢迢(초초)-먼 모양. 여기서의 밤의 형용. 3) 底事(저사)-무슨일.

[해설] 轉句의 새와 꽃은 자신의 倦遊(권유)에 비유한 것이다.

[저자] 李昌符: 字는 巖夢. 咸通 4년에 進士에 급제하여 尚書郎과 膳部元外郎을 지냈다.

詩集 1권이 있다.